

## 짱구와 드래곤볼

드래곤 볼 : 주인공 손오공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거듭되는 적들과의 투쟁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초인간으로 진화해나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악의 최고수인 '마인 부우'와 대결을 펼치는데, 그때 전 지구인은 기를 모아 그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선하고 명령하는 이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마침내 손오공의 기는 풀 파워가 되고 마인 부우를 제거함으로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잘했다 사탄, 네가 정말 세계의 구세주다!"

어덜트 베이비(adult baby) : 한국의 한 청소년 만화 잡지에 소개된 연재작 일본 만화입니다, 주인공 길남이(백일이 갓 지난 아기)가 아저씨와 비디오를 보던 중 화면에 등장한 한 여자의 속옷을 슬로우와 스톱모션으로 보다가 아줌마에게 들킨다는 내용입니다.

길남이 : "이거 귀중한 테이프야, 아저씨."

길남이 : "우연히 찍힌 새하얀 팬티."

길남이 : "이건 가보급이라구."

아저씨와 길남이 : (아줌마를 보고 놀라며) "우~와~."

짱구는 못 말려 : 아동, 청소년, 성인지를 모두 넘나들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만화입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수영장에 간 짱구는 수영 강습 시간에 물 속에서 미녀 강사의 다리와 엉덩이를 보고 크게 놀랍니다. 엉겁결에 엄마의 수영복을 잡아당겨 엄마의 수영복은 벗겨지고...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간 짱구. 진열되어 있는 여자 마네킹을 보고서 신기해 들춥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마네킹은 팬티가 시커멓다!"

이상은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온 몇몇 일본 만화입니다. 물론 일본 만화라고 해서 전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중에는 「아기와 나」 처럼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두 자녀의 얘기를 그린 감동적인 가족 만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본 만화들은 선정성, 폭력, 신비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일본 만화들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일본 만화가 갖는 독특한 흥미 때문입니다.

일찍이 일본은 19세기 말에 영국 만화 잡지 「핀치」의 일본어 판을 발행할 정도로 만화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데스카 오사무의 「아까후와 신 보물섬」 등을 거쳐 60년대 중반 「소년 매거진」의 백만 부 발행 시대를 맞으면서 그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만화의 경쟁력을 부채질한 것은 잡지사가 매달 조사하는 엽서 집계였습니다. 이 집계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이 떨어지는 작품은 언제든지 도중 하차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 만화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치열한 적자생존의 터전에서 자라난 일본 만화인 만큼 그만큼 독자들에게 어필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만화 왕국 일본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단순히 흥미로만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만화라는 도구를 상업주의의 시  
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인간 심성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열  
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만화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은 물론 청소년 여러분의 노력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건전치 않은 만화를 대했  
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외면하고 반대로 훌륭한 메시지가 담긴 만화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  
로 추천해서 좋은 만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1-22)

손종태 / 기독교문화사역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